

창간 2015년 5월 22일 발행 대전MBC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스포로 161 대전문화방송(주)

발행인 이진숙 편집주간 김미리 경영심의부장 우경수



새해 대전MBC가 드리는 약속 -2016년 대전MBC 주요 기획-



을미년(乙未年)이 가고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아 온다. 새해가 되면 늘 그렇듯 누구나 한 해 설계와 계획을 세운다. 누군가는 금연이나 금주를, 어떤 이는 업무에서의 성취나 해야 할 일에 대한 다짐을, 가족의 소망을 기원해 보기도 한다. 대전MBC는 새해를 맞아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청자와의 약속을 정했다. 지금까지처럼, 2016년에도 대전MBC 임직원들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될 것이다. 새해 대전MBC의 단 하나의 소망인 시청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기 위해...

심층기획보도

<총선 '선택 2016'>

4.13 총선 관련 기획보도를 준비, 총선 시기별 현안을 집중 점검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참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알권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연속기획>

침체된 경기 속에 재취업과 재창업에 성공한 소시민들의 삶을 부각해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



과학도시 위상 함양

<한국의 과학자들>

뛰어난 세계적 업적을 내고 있는 대덕특구의 대표 과학자들의 활동을 국내외에 알리고, 집중 조명하는 기획 프로그램 제작

<노벨과학상 이야기>

과학이 우리 생활을 바꾸는 실용적·근본적 수단임을 널리 알리는 집중 조명 프로그램 '세상을 바꾼 노벨과학상' 제작



함께 발전하는 지역 공동체

<원도심 살리기 '힘내라 원도심'>

모든 지역의 뿌리인 원도심은 도시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향. 원도심을 집중 조명하고 침체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연중 보도·특집프로그램·캠페인 제작

<사랑의 집 고치기>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행사 지속 개최

<2016 한빛대상>

성실하게 일하고 봉사하는 지역민을 발굴·시상해 지역에 나눔의 기운을 전파



글로컬(Glocal) 대전MBC

<KOICA 해외 일자리 찾기 박람회>

경기침체 속 취업난을 겪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해외 일자리 찾기 박람회를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공동 개최해 구직자와 구인자의 가교 역할 일조

<고려인삼 세계화 선도>

고려인삼 해외 전시회 등을 통해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K-POP 등 한국문화의 전파에도 노력



도·농 상생 프로젝트

<로컬푸드 직거래 대축제>

올해 큰 호응을 얻었던 '충청남도 로컬푸드 푸른밥상 직거래장터'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장터로 활성화

<고향마실 페스티벌>

3회째를 맞는 고향마실 페스티벌에 체험교육을 강화해 전국적인 도·농 상생 모델로 육성



충청의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백제역사유적 조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백제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백제인의 훈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백제유적지구의 전국적인 관광 명소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대축제>

매년 4월 열리는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를 서해와 내포를 아우르는 대표적 민속대축제로 승화·발전

조형찬 | 경영기술국 경영심의부





2016년 신년사



대전MBC 사장 이진숙

사랑하는 대전MBC 가족 여러분,
한 해가 가고 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5
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올 한 해 좋은 계
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날이 밝
았지만 오늘의 의미를 달리 기록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대전MBC는 나름대로 큰 성장
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콘텐츠 경쟁력
의 신장입니다. 지난해 말 시청률 조사 결과
를 보면, 5년 만에 연간 시청률이 경쟁사를
앞질렀습니다(TNmS 기준, 12월 초 조사).
시청자들이 MBC 프로그램을 대하는 신뢰
와 사랑의 결과를 수치화한 것이 시청률인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특히 시청률 주이는 4분기 들어 크게 높아졌
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전MBC의 대표 뉴
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도
시청률이 상승했고, <생방송 아침이 좋다>
와 <하참의 토크&조이>도 꽤나 만만한 시청
률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직원 여러분
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전MBC 구성원 여러분,

콘텐츠 경쟁력은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
다. 경쟁력은 상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
는 능력입니다. 시청자들이 우리 채널로 오
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프로그
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
도,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훌륭한
기획, 사회의 균형을 위한 감시와 고발, 트렌
드를 따라잡는 소재 발굴 등으로 시청자들
의 신뢰를 사야 합니다. 텔레비전은 습관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비누, 치약 하나를 고
를 때도 신중하게 고르고 함부로 바꾸지 않
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면 그 제품을 계속 쓰
게 됩니다. 대전MBC 프로그램도 시청자들
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해도 시청자
들이 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제작비가 부족해서 본사에서 만드는 것 만큼
만들 수가 없다고, 인력이 부족해서 힘에 부
친다고, 그리고 시청자들도 이런 열악한 상
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경쟁에서 이미 뒤
로 처지게 됩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부족하
다고 인정하는 순간 게임의 무게 추는 기울
어버리니까요. 시청자들은 서울에서 만든
것인지, 부산에서 만든 것인지, 대전에서 만
든 것인지 구분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보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저 MBC의 프로그
램을 보는 것입니다.

대전MBC 직원 여러분,

최근 어느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만든 드라
마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나 자극적인 소재도 없는, 흔히 말하
는 '착한 드라마'인데 사람들은 목을 빼고 기
다렸다가 그 프로그램을 본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드라마를 만들 때는 제작비가 지상
파 드라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
었습니다. 회당 출연료가 1억 원에 이르는
특급 배우들도 없이 무명에 가까운 배우들이
출연해서 애기자기하게 드라마를 엮어갔
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한 편이 끝날 때마다
무명 배우들은 여러 편의 광고를 거며 잡을
정도로 인기배우가 되었고 드라마는 방송사
에 돈다발을 갖다 주는 효자/효녀 프로그램
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와 땀 흘린 노력이 만든 부가가치입니다. 우
리 대전MBC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정신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와 땀으로 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가진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전MBC가 2015년에 시청
률 경쟁에서 한 단계 뛰어넘었다는 것은 도
약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5년 대전MBC는 시청률 뿐 아니라 수
익 면에서도 큰 성과를 냈습니다. 프로그램
시청률이 상승하고 대전MBC가 추진한 각
종 사업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생
각합니다. 콘텐츠와 함께 방송사를 지탱하
는 양대 기둥 가운데 하나는 사업입니다. 어
떤 사업이든 사업은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다른 경쟁사처럼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도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회
사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서 이익이
남아야 그 이익금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
드는 제작비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작비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업
을 기획하고 이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
드는 일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맙은 일에
자부심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회사는 사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 차원의 연수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화
시키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여러분
이 근무하는 환경도 개선할 것입니다. 대
전MBC 직원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여
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는 직원들은 그 성과에 버금가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전MBC 구성원 여러분,

2016년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MBC라
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
전MBC가 만든 프로그램들이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대전MBC가 하는 사업들이 유
례없는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남들하고
꼭 같이 하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제와
꼭 같이 행동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결과
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떨굴
하고 어제보다 더 많이 일하면 대전MBC의
내일은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큰 성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❷

Happy New Year!

열정 대전MBCian 스토리

<열정으로 뛰는 대전MBC 사원들의 현장 이야기>

2016년 고화질 송출 이상 無

방송 송출의 최종단, 송신소와 중계소

전파는 어떻게 각 가정에 도달되는 것일까? 방송국에서 제
작한 프로그램을 방송신호 형태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통해 송신소로 전달하면 송신기가 그 신호를 증폭하여 송신
소 철탑에 달려있는 안테나를 통해 내보낸다. 대전의 경우,
식장산 송신소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디지털TV 방송,
DMB 방송, 음악FM 방송, 표준FM 방송 모두 이곳에서 송
출하고 있다. 대전MBC는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곳곳에 방송을 송출해야 하기 때문에 송신소 이외에도 11개
의 중계소를 운용하고 있다.

지속적 관리와 점검은 필수

송중계소에는 전파를 송출하는 송신기를 비롯해 연주소와
각 중계소에 각 전파를 전달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장비가 24
시간 풀가동 중이다. 이 장비들이 가지는 특징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인데, 전파의 품질보
장과 불법적인 사용방지를 위해 정부기관인 전파관리소에
서 정기적으로 무선국의 허가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
히, 무선국 검사의 경우, 장비에 관련된 기술적 항목이 10가
지가 넘으며 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합격하기 어
렵다. 무선전파를 사용하는 장비의 특성상 기술적 항목이 쉽
게 변하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수다.

디지털TV 송신기 교체 공사

식장산 송신소는 대전, 세종 전 지역 및 충남 일부 지역에 방

송을 송출하는 대전MBC의 메인사이트이다. 2007년 말 식
장산 송신소 상시근무자 철수를 마지막으로 현재는 모든 송
중계소에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워 대형 방송사고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장비의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이런 취지로 2003년부터 윤용해온 디지털TV 송신기의 교
체를 올해 진행했다. 해당 송신기는 서울 남산을 비롯한 5대
광역시 메인사이트에서 윤용 중이었는데 디지털방송 초기
모델로 에리가 종종 발생되어 방송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
았다. 이런 이유로 이미 서울 남산과 대구, 울산은 교체를 완
료했으며 대전MBC도 교체를 추진한 것이다.



송신기는 가장 구성이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방송 장비
중 하나이다. 과거 아날로그 송신기에 비하면 무게와 부피가
상당히 줄었으나 아직도 방송 장비 중 가장 큰 공간을 차지
한다. 따라서 송신소의 공간도 중요한 고려 대상 중 하나였
다. 또한 최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하게 기술검토
를 했으며, 외산장비로 주문·제작·선적까지 16주가 소요되

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다. 중계차만한 텁차에
실려 온 송신기는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통과하지 못
해 2.5톤 화물차에 3번을 나누어 산 정상에 도착했고, 크레
인을 이용해 송신소 2층 기계실에 무사히 안착됐다.

12월 17일 새벽, 새 송신기로 첫 ON-AIR

2주에 걸쳐 설치 공사를 마치고 제조분사 엔지니어의 최종
송신기 테스트가 완료되었다. 문제는 구 송신기에서 새로운
송신기로 안테나를 옮기는 작업이었다. 안테나와 케이블은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방송을 끊지 않고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방송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벽 정파
시간을 이용하지 않고는 작업이 불가능했다. 새벽 정파시간
은 불과 2시간 정도. 그나마 자칫 변수가 생겨 정파시간 동
안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해 면밀히 계획을 세웠다. 작업을 위해
철탑에 있는 안테나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칼바람이 부는
겨울철 날씨도 고려해야 했다. 안테나를 옮기는 작업에 소요
되는 새벽 정파시간은 4일이었다. 4일 동안 밤낮없이 방송사
고가 나지 않도록 작업을 진행했다. 다행히 차질 없이 작업
을 끝냈고, 마침내 12월 17일 새벽, 성공적으로 신규송신기
로 ON-AIR할 수 있었다.

2016년, 대전MBC는 더욱 안정적으로 고화질 방송을 시
청자들의 안방까지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 새해에도 대전
MBC 프로그램에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❷

신근재 | 경영기술국 방송기술부

건강지킴이 닥터스

턱 근육 통증,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 턱관절 장애의 원인과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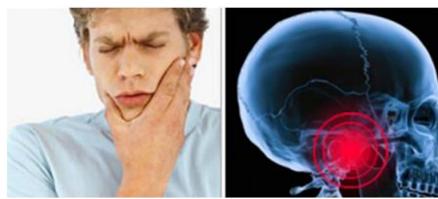
어느 날 갑자기 턱 근육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증상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턱관절 장애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며, 가볍게 여겨 방치했다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턱관절 장애의 증상

턱을 들리싼 근육, 뼈, 관절의 배열이 틀어지거나 턱관절을 감싸는 근육, 연골, 관절 디스크 등이 손상되면 입을 잘 벌리지 못하거나 입을 벌릴 때마다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턱뼈와 이어진 얼굴과 목의 근육이 긴장되므로 두통과 목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며 손상된 쪽의 턱관절이 잘 열리지 않아 안면비대칭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통칭해 턱관절 장애라고 합니다.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와 잘못된 구강습관

이러한 턱관절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 등 정서적인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자체도 턱관절에 좋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참으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무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 중에는 턱관절 질환을 가진 선수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스포츠들이 순간적인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게 되어 턱관절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쁜 구강습관도 턱관절 장애를 유발합니다. 한쪽으로만 씹기, 이 악물기, 딱딱한 음식 즐겨먹기 등이 바로 턱관절 장애를 불러오는 나쁜 습관입니다. 이같이도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같이가 심할 경우 이가 많아 턱관절에 장애를 유발할 뿐 아니라 과도한 턱 운동으로 근육을 긴장시켜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치아가 잘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도 이같이와 마찬가지로 근육을 긴장시켜 턱관절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또한 상실된 치아가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해야 합니다. 치아가 상실되면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경우가 많아지고 결국 턱관절에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상실되지 않았더라도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약물요법부터 수술요법까지 치료방법 다양

턱관절 장애 치료 방법은 증상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저 턱의 구조와 기능을 잘 알고 치료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외과를 찾아 정밀검사와 상담을 받고, 자신의 증상에 따른 치료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턱관절 장애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요법부터 수술적인 치료방법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턱관절 장애 초기에는 비교적 간단한 약물요법이나 보톡스 요법, 스플린트 등과 같은 치료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장애 증상이 심한 경우이거나 안면비대칭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양수술과 같은 수술적인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턱관절 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요법부터 양수술과 같은 수술적인 치료방법까지 적용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외과가 있는 치과를 찾아 체계적인 시스템을 거쳐 자신에게 맞는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❶



도움말

이도훈

치의학 박사

대전 이엘치과병원 병원장

리포터

김용삼 대전MBC 의료포털 닥터(www.drmbc.com)



2015년을 빛낸 대전MBC 영광의 얼굴들 - 대전MBC 우수프로그램상 시상 -

2015년 대전MBC를 빛낸 우수프로그램과 사원들을 시상하는 '대전MBC 우수프로그램상 시상식'이 2015년 12월 30일(수) 대전MBC 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1년간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면서, 공영방송의 일원으로서 고품질 방송과 공익사업의 제작과 진행에 헌신해 시청자들에게 특히 사랑을 받은 15명의 주역들과 13개 프로그램·사업들을 소개한다.

최우수 작품상

대전MBC가 수여하는 2015년 최우수 작품상의 영예는 라디오 다큐드라마 <상록수(연출: 권성주 PD)>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단편적 인 사실들만 전해지고 있는 지역의 문학인사 심훈의 삶을 입체적으로 접근해 청취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고, 8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상록수 정신'을 소개함으로써 '고전의 힘'을 청취자들에게 알리는데 기여했다.



▲최우수 개인상을 수상한 이승섭 기자



2015년 대전MBC를 빛낸 작품상과 우수상, 특별상 우수상 부문

부문	프로그램	입상자
우수 작품상	TV 허참의 토크&조이	이상욱, 이민수 PD
	보도 특집 다큐 '꼴찌의 반격'	김윤미 기자
우수 개인상	제작 생방송 오늘 등	박선자 국장
	영상/미술 메르스 영상	이선주 차장
	진행 생방송 아침이 좋다 외	김경섭 아나운서
	경영/기술 TV주조 기술감독	정경윤
	사업 세종시 개청행사	김종찬 국장, 노현수
	프리랜서 생방송 아침이 좋다	이리나 리포터
	특별상 우수상	'트렌드코리아 2015' 김난도 교수 특강, 창사특별기획 '그 날 이후-메르스 150일 간의 기록' 외
	대전MBC 창사 51주년 특별 기획 '갤럭루트'	윤성희 차장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권성주 PD

최우수 개인상

한 해를 빛낸 사원에게 수여되는 최우수 개인상의 영광은 보도국 취재부 이승섭 기자에게 돌아갔다. 이승섭 기자는 2015년 1월 <천안 부탄가스 공장화재>, 2월 <세종시의 엽총 난사 사건>, 9월의 <경찰 착오.. 황당한 사면 번복> 등 각종 사건사고를 발 빠르게 취재해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아리랑 3A호 위성 발사>를 러시아에서 현지 취재하고, 메르스 사태와 베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기획 취재하는 등 깊이 있는 보도물을 제작하는데도 열파 성을 다 했다.



▲특별상을 수상한 이감우 차장

이밖에 2015년 대전MBC를 빛낸 작품상과 개인상 가운데 우수상 부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❷

조형찬 | 경영기술국 경영심의부

M사모의 한마디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대전에 처음 MBC 전파가 터져 나왔을 때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CM송'이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로 유명한 구봉서, 배삼룡 코미디언들의 라면 'CM송'은 지금까지도 곧잘 회자된다.

어찌면 방송 광고의 효과가 가장 좋았을 때가 그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만큼

방송에서 광고를 듣는다는 것은 신기할 만큼 낯선 문화였던 것. 물론 그것은 소비 증가의 효과가 커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이바지를 했다.

하지만 일선 신문기자로 활동했던 나는 대전MBC의 임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보도체계가 가장 부러운 것이었다.

지금은 은퇴한 박천구 씨(前 대전MBC 상무)는 나와 같은 시기 경찰 출입을 했는데 어찌나 새벽부터 현장을 누비는지 감당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흔히 아이스크림통이라고 부르던 녹음기를 메고 어디든 달려가 마이크를 내밀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무렵 특별한 열정이 넘쳤던 것 같다. 그렇다. 새해를 맞아 아쉽고 필요한 것은 매스컴 종사자들에게 있어 열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을 특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게도 무력감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때, 그 침몰의 현장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오직 무력감, 그것이었다.

지난 봄부터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

도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 우왕좌왕, 무력감뿐이었다.

국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예외도 1번지', 국회의사당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무기력의 상징이다. 가계 부채가 1,000조에 이르는데다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돼버린 20만 명의 젊은이들, 그 축 처진 힘없는 청년실업자의 어깨를 보면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꼭 죄 지은 심정이다.

도대체 사다리는 어디에 숨어있는 것일까? 큰 선박에는 밧줄로 만든 사다리가 선체 밖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재난을 당했을 때 이 밧줄 사다리는 선원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준다.

흔히 옛날부터 선박의 밧줄 사다리를 '야곱의 사다리'라고 불렀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 형 에사우에게 미움을 받고 광야로 도망쳤는데 하루는 돌베개를 베고 자자 꿈을꾼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모습이 보이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꿈이었다. 그 후 이 사다리는 쫓기며 돌베개를 베고 자자 하는 인간에게도 구원과 희망이 있음을 말해 왔고 화가들의 손을 거쳐 이를 담은 이미지화 됐다.

그렇게 사다리는 삶의 희망이며 꿈이다. 우리 매스컴 종사자들이 이 시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바윗덩이 같이 짓눌러 오는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야곱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거기에 열정이 필요한 것이다.

어느 송년회 좌석에서 누가 물었다. "대전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내가 말했다. "지금처럼 '어둡다'는 탄식만 할 게 아니라 그 탄식을 물리치고 대전에서

유럽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있으면 대전은 살아날 것이요. 그 열정을 일으키는 일을 방송이 해주었으면 땄어요!"

그렇다. 처음 대전MBC가 문을 열었을 때의 그 숨가쁜 열정이면 대전을 윤통 뜨겁게 달굴 수 있을 것이다. 사건, 사고 그런 잡다한 뉴스 보다 삶의 이야기 속에 배어있는 진수를 꺼내는 그런 열정을 보고 싶다.❷



대전MBC 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12월 21일(월)~ 12월 27일(일)

뉴스 제외 12월 넷째 주

순위	제작사	제작주
1위	MBC 가요베스트	조영남 토크콘서트
2위	대전MBC 뉴스데스크	대전 세종 충남
3위	테마기행 길	

뉴스 시청률 12월 넷째 주

순위	제작사	제작주
1위	MBC 뉴스투데이	12월 24일
2위	MBC 뉴스데스크	12월 26일
3위	MBC 뉴스투데이	12월 22일

올해 마지막과 새해 첫 해를 우리지역 명소에서...

-지역 해넘이·해맞이 행사 다채-

을미년(乙未年)을 보내고 병신년(丙申年)을 맞이하는 해넘이·해맞이 축제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지역 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새해 1월 1일 다소 흐린 날씨지만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행사를 찾아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해 보는 건 어떨까?

서천 마량포 해넘이·해돋이 축제

서천군 해넘이·해돋이 축제는 마량포구 축제장 특설무대에서 1박 2일 동안 펼쳐진다. 31일 오후 6시부터 열리는 해넘이 행사에서는 명랑운동회와 댄스경연대회, 퀴즈왕선발대회, 즉석노래자랑 등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해 축제를 즐기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흥겹고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해맞이 행사 역시 같은 장소인 마량포구에서 진행된다. '새해 소원 촛불 밝히기'를 시작으로 2016년 신년 카운트다운이 특설무대에서 진행되고, 새해맞이 불꽃쇼와 축하공연이 1월 1일 새벽 0시 30분까지 이어진다. 새벽까지 일출을 기다리는 관광객들을 위해 1일 새벽 1시 30분부터는 야외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서천군 서면 마량리 마량포구 일원 일몰·일출 시각

일몰 : 2015년 12월 31일 오후 5시 28분
일출 : 2016년 1월 1일 오전 7시 44분

아름다운 태안반도 절경 속 해넘이·해돋이

2015년 한 해를 떠나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행사가 아름다운 바다와 낭만이 있는 태안반도에서도 펼쳐진다.

할미·할아버지 바위 낙조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는 오는 31일 정오부터 저녁 7시까지 '꽃지 해넘이 행사'가 열려 전국에서 몰려드는 인파가

안면도를 가득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연날리기와 떡국나누기, 염서쓰기, 소망풍선 2015개 날리기 등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오후 5시 27분에 일몰이 시작되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와 함께 레이저쇼, 아듀 2015 공연 등 즐거운 불거리가 겨울바다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새해 1일에는 백화산 정상과 연포해수욕장에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백화산 해맞이 행사에서는 오전 6시 40분부터 새해소망쓰기, 대북공연, 희망의 노래 제창, 새해소망 풍선날리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오전 7시 47분에 떠오르는 새해 첫 태양을 맞이한다.

태안군 근흥면 연포해수욕장에서는 31일 저녁 7시부터 캠핑파이어와 희망등 날리기, 불꽃놀이 등 전야제가 열리



고, 다음날인 1일 오전 7시부터는 세시음식을 나누며 모두가 한데 어울리는 즐거운 새해 첫 날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대전과 세종, 충남의 주요 명소에서도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❷

조형찬 | 경영기술국 경영심의부

대전·세종 해맞이 행사

장 소	일 시	행사내용
대전 동구 식장산 해맞이 광장, KT 송신탑 광장	1일 오전 7시부터	소망염원 풍선날리기, 새해소망쓰기, 희망나팔 나눠주기 등
대전 서구 구봉산 구각정	1일 오전 6시부터	풀물공연, 떡국나누기 등
대전 대덕구 계족산성 남문지 광장	1일 오전 7시부터	대북공연, 소망풍선 날리기, 떡국나누기 등
대전 유성구 보덕봉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새해맞이 소원염원 제례, 합성지르기, 기념촬영 등
대전시민천문대 일출 행사	1일 오전 6시부터	새해맞이 일출 관측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1일 오전 7시부터	공연, 즉석사진 활동, 소원풍선 날리기, 떡국 나눔 행사 등